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④

### 현애란(懸崖蘭)과 노근란(露根蘭)



윤미 민영익의 노엽종지단.

기록상 최초로 난초를 그린 화가는 중국 북송의 미불(米芾; 1051~1107)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수많은 한·중·일 동양 삼국의 화가, 시대부, 선비, 학자, 승려들이 묵란(墨蘭)을 통해 자신의 삶과 풍류를 그리고, 한(恨)을 풀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말부터 묵란이 그려지기 시작했으나 현존하는 작품은 없다.

현재 가장 오래된 묵란도는 조선 중기의 화가 이경(李暹; 1541~1622)이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대에 화가 이징(李澄; 1581~?)과 이우(李瑀; 1542~1609) 등도 묵란도를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묵란은 그리 는 방식에 따라 혜란(蕙蘭), 춘란(春蘭), 건란(建蘭) 등으로 구분한다.

한 줄기에 한 송이의 꽃이 봄에 필 경우에는 난(蘭)이라 부르고,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꽃이 가을에 피는 경우에는 혜(蕙)라고 부른다.

또, 중국 건양지방에 많으며, 민란(閩蘭), 준하란(駿河蘭), 웅란(雄蘭)이라고 불리는 건란이 있다.

재밌는 것은 난꽃에 꽃술을 그리는 법을 점심법(點心法)이라 부르는 데, 꽃술이 마음의 눈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대개의 경우 서예의 초서체 산(山)자, 소(小)자, 심(心)자 형태로 그려준다. 또 꽃의 방향에 따라 아래 또는 위를 향해 있는 형태를 언양(仰仰), 앞 또는 뒤로 향한 형태를 반정(反正), 꽃봉오리가 활짝 핀 상태를 함방(含放)이라 부르며, 두 꽃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상향(相向)이라고 부른다.

또한 기후의 상태에 따라 바람[風], 비[雨], 이슬[露], 갠[晴]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꽃의 핀 정도에 따라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상태인 미개(未開)와 봉오리가 점차 벌어지는 장개(將開), 꽃잎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초개(初開), 반개(半開), 전개(全開)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난초는 사군자(四君子) 중의 하나로 동양에서는 고상한 기풍으로 일찍부터 선비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아 왔다.

묵란은 묵죽(墨竹)과 묵매(墨梅)에 이어 11세기 중엽부터 중국에서 발달했다.

원나라 초기의 정사초(鄭思肖; 1250~1300)라는 작가는 뿌리 없는 난초인 노근란(露根蘭)을 그려서 난초를 통해 나라 잃은 슬픔을 그려냈다.

노근란은 땅을 그리지 않고, 뿌리가 드러난 난초를 그리는 것이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려야 할 조국의 땅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이 묵란도를 통해 나라 잃은 설움을 표현했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흥선대원군 이하응(興宣大院君 李是應; 1820~1898), 윤미 민영익(芸湄 閔泳翊; 1860~1914)같은 구한말 묵란의 대가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초의 관전(官展)인 조선미술전람회의 사군자부를 통해 등단한 많은 작가들 상당수가 노근란을 그려 나라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깎아

지른듯한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현애란(懸崖蘭)을 통해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는 민족과 국가의 안

위를 걱정했다.

글을 마치면서, 난초를 사랑했던 중국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343~277)의 시 한 구절을 올려 볼까 한다.

‘이소(離騷)’

작은 밭에는 난초를 심고 큰 밭에는 혜란을 심었으며 유이와 계차는 따로 심고 두형과 방지는 섞어 심었노라/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님을 위해 바치려 했던만 시들어 떨어질들 어찌 슬프리요만 서러워라 잡초에 묻힌 향기로운 풀이여/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배불러도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토색질 자기의 비루한 마음으로 남을 헤아리며 저마다 미워하고 질투하네 / 모두가 권세와 재물을 쫓기에 바쁘지만 내게는 바쁜 마음 없노라 오직 자꾸만 늘어가 는 이 몸 고결한 이름 세우지 못할까 걱정이라네/ 아침엔 목련꽃 이슬 마시고 저녁엔 떨어지는 국화꽃 잎 먹으며 다만 내 마음 참되고 아름다우면 굶주려 초췌한들 어떠하리.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2 염화실(拈花室) 박새



부처로 태어났으나 부처로 죽지 못하고, 이미 부처였으나 부처로 살지 못하니 그 이름 중생이라. 깨닫고 이뤄야만 끝이 나는 중생 짓이라 늘 지금 이 자리가 힘이 든다. 까마득히 먼 옛날에 꽃 한 송이로 주고 받은 그 말 한 마디가 잊히지 않고 머리맡에 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매화

숲에 날아든 박새 한 마리. 제가 날아든 숲이 어디쯤인지 아는 것일까. 선지식의 신발 한 켤레가 저 멧돌 위에 놓이기까지 매화 숲이 얼마나 피고 져는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 무슨 인연이기에 저 작은 몸뚱이로 염화실 마당을 드나드는 것일까. 한 치 앞의 인연을 알 수 없으니 매화 숲도 ‘숲

일 때 날아든 박새가 인연이요, 멧돌 위에 놓인 신발 한 켤레도 염화실 현판 걸렸을 때가 인연이다. 염화실 마당에 매화꽃 만 발하고, 꽃잎에 앉은 박새 한 마리가 꽃 한 송이 들어올린다.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어느 해 봄날에 부산 범어사 염화실 앞에서.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전시감상 9 조선 청허휴정 선사(淸虛休靜 禪師)의 ‘인경구탈(人境俱奪)’

### 소를 타고 소를 찾다

梨花千萬片 이화천만편  
飛入清虛院 비입청허원  
牧笛遍前山 목적과전산  
人牛俱不見 인우구불견

배꽃 천 만 이파리  
맑고 빈 선원에 날아드누나.  
소치는 피리소리 앞산을 지나는데  
사람과 소 모두 다 보이지 않네.

조선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스님의 이시는 심우도(尋牛圖) 가운데 사람과 소 모두 잊어버린 상태인 인우구탈(人牛俱忘), 즉 자신이나 소나 모두 실체없는 공(空)임을 깨닫는, 주객미분인 불이(不二)의,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경지를 읊었다.

곽암(廓庵)의 <심우송(尋牛頌)>에서 비롯된 ‘심우’는 선사들의 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재이기

도 하다. ‘소를 찾음[尋牛]’ ‘소의 자취를 봄[見蹟]’ ‘소의 실체를 봄[見牛]’ ‘소를 얻음[得牛]’ ‘소를 부림[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옴[騎牛歸家]’ ‘집에 이르러 소를 잊음[到家忘牛]’ ‘나와 소 모두를 잊음[人牛俱忘]’ ‘본원자리에 돌아감[返本還源]’ ‘저자거리에 서서 소를 드리움[立塵垂手]’은 본성을 깨닫는 소식과 습기를 없애 나가는 모습, 본마음이 드러나고 보살행의 실천을 위해 중

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 준다.

스님은 시의 제목을 ‘사람과 경계가 모두 없어짐’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경지를 두고 한 말일까? 앞산에 소치는 목동의 피리소리만 들리고 사람이거나 소가 모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쉽게 다가설 수 없을 듯하다. 그 경지를 보여 준 장치가 바로 “흄날리는 배꽃이 청허의 집에 날아든다.”는 두 구이다. 곧 고정되지 않고 피었다 지는 경계를 비유한 배꽃이 실체가 공한 무아(無我)를 비유한 청허에 드는 경지인 것이다. 스님은 “마음을 제달한 사람은 거리의 잡답이나 새소리까지도 법의 실상을 잘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소리조차 저 봄날 흄날리는 도화처럼 황홀하게 품을 수 있는지 시험 삼아 관(觀)해 보자.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天氣福

#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불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